

Q 르포 | 프랜차이즈 교육의 메카 'BBQ 치킨대학' 가보니

연구·실습 중심 복합교육... 韓 외식산업 랜드마크 '우뚛'

지난 12일 서울에서 한시간가량 달려 경기도 이천 철봉산 자락에 있는 '치킨대학'에 도착했다. 이곳은 제너시스BBQ 그룹의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담당하는 그룹 연수시설이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곧 교육사업이다"라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설립한 곳이다.

윤 회장은 1995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2개층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다. 그 중 1개 층을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초기 자본금의 60% 가량을 교육에 투자했다. 이러한 교육철학과 창업교육으로 그룹 설립 4년 만에 1000호점 개설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쓰게 됐다. 이후 치킨대학은 2000년 경기도 광주로 확장 이전했으며, 2003년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았다.

윤 회장은 가맹점과 본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품질향상과 교육,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업시작 5년 만에 맥도날드의 햄버거 대학을 벤치마킹한 치킨대학을 설립했다. 이는 맥도날드가 14년 만에 햄버거 대학을 설립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교육·품질'

치킨대학은 약 26만㎡(약 8만평) 부지에 4층 규모의 중성

관, 5층 규모의 혁신관으로 구성됐다. 7개의 강의시설과 11개의 실습시설, 40개의 숙소시설 등 1일 동시 500명 교육이 가능한, 초 현대식 시설을 완비하여



교육·연구 담당하는 연수시설 맥도날드 '햄버거대'보다 빨라 글로벌 전초기지로써 역할 다해 치킨 '복합 테마파크'로 성장을

세계 최초, 최고의 프랜차이즈 전문 교육기관으로 패밀리와 구성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치킨대학은 일반 교육기관과는 다르게 연수와 실습기능, 사회봉사 및 연구기능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 중이다. 또한 세계 최대, 최고의 프랜차이즈 그룹, 세계 5만개 가맹점 달성을 위한 교육의 요람이고, 외식산업의 인력 양성과 외식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글로벌 전초기지로써 세계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치킨대학은 2025년까지 세계적인 4년제 종합대학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킨대학 내에 세계 유일의 132종의 관상 닭 사육박물관 개관 및 힐링 수목원 등 테마파크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너시스BBQ는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인들에게 기억되는 치킨관련 복합 테마파크로 성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196개국 5만개 가맹점 운영 목표

제너시스BBQ는 마스터프랜차이즈 형태로 55개국과 계약을 했다. 현재 37개국에서 매장 운영 중이다. 대만에서는 패밀리마트와 협약을 통해 쇼업인(shop-in-shop)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제너시스BBQ는 각 나라별 현지화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지화 메뉴는 세계식문화과학기술회원에서는 하고 있다.

또한 제너시스BBQ는 기존 로고 B BQ를 bb.q로 교체했다. 이는 글로벌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제너시스BBQ에서 BBQ를 비비큐로 알고 있다"며 "사실 BBQ는 Best of the Best Quality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로고를 BBQ에서 bb.q로 바꿨다"고 전했다.

제너시스BBQ의 경쟁상대는 세계적인 햄버거 브랜드 맥도날드다. 김 원장은 "제너시스BBQ의 글로벌 전초기 지인 치킨대학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96개국 5만개 가맹점을 운영해 맥도날드는 뛰어 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대웅제약은 지난 9일과 10일 '나보타'의 해외 의사 교육 프로그램인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

해외 의사 초청 교육, '나보타' 알린다

대웅제약, '마스터 클래스' 개최

대웅제약은 지난 9~10일 자체개발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해외 의사 교육 프로그램인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보타 마스터 클래스'는 나보타의 발매국 및 발매 준비국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올해 5년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에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 45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참가자들은 대웅제약 본사와 나보타 공장을 견학하며 미국 cGMP 및 유럽 GMP를 획득한 최첨단 생산시설을 직

접 살펴본 후, 나보타의 임상결과와 강의 및 나보타를 활용한 최신 시술법 시연을 통해 최신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는 예미원피부과 윤춘식 원장, 연세봄빛피부과 조수현 원장, 오아로피부과 정재윤 원장, 단국대학교 박병철 교수 등이 강연자로 나서 나보타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이 가지는 의미와 최신 임상결과, 나보타를 활용한 시술법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실제 클리닉을 방문해 '나보타프리트' 시술법을 비롯해 보툴리눔 독신과 관련된 다양한 시술법에 대한 라이브 시연을 참관하며, 시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세경 기자 seilee@

B형간염 치료 전임상 결과, 최우수 선정

GC녹십자 '헤파빅-진'

GC녹십자는 지난 10~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간학회(EASL) 국제학술대회(ILC 2019)에서 B형 간염 면역글로블린 'GC1102(헤파빅-진)'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에 대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럽간학회 국제학술대회는 간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행사로, 소화기학과 외과학, 세포생물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전세계 의학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연구자료를 공유한다.

GC녹십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헤파빅-진'의 유효성을 확인한 전임상 결과가 최우수 발표(Best of ILC 2019)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헤파빅-진'은 면역글로블린 제제로, 혈액(혈장)에서 분리해 만든 기존 방식과 달리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적용되어 항체 순도가 더 높고, 바이러스 중화 능력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헤파빅-진'의 임상 2상이 개시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학회 참석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았다.

/이세경 기자

쿠팡 "올해도 공격적 투자는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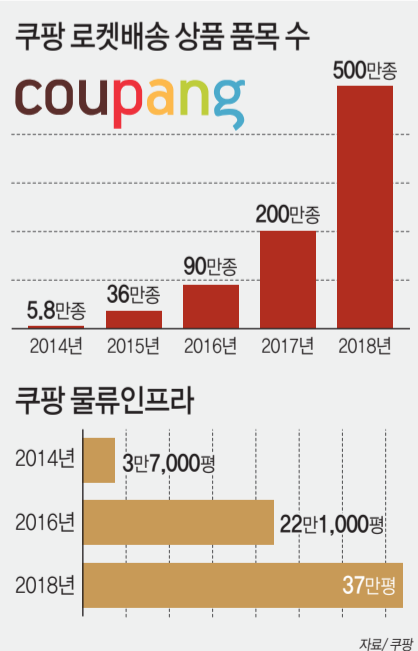
국내 이커머스 최대 매출 '4.4兆' 고객감동 '기술·인프라' 키울 것

쿠팡은 외부감사보고서를 통해 2018년 매출 4조4227억 원을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사상 최대 매출 규모다. 매출 성장률은 2017년 40%에서 지난해 65%로 뛰어오른 한편, 영업손실액은 1조9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액의 발생 이유는 공격적인 투자 단행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지난해 전국 12개 지역의 물류센터를 24개로 늘렸다. 37만 평, 축구장 167개 넓이의 물류 인프라는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되는 익일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의 핵심 시설이다. 지난해 쿠팡은 2만4000명을 직간접 고용했고, 인건비로 9866억 원을 지출했다.

아울러 고객 감동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단행했다. 로켓배송이 시작된 2014년 5만8000종에 불과했던 로켓배



송 셀렉션(상품 품목 수)은 2018년 500만 종으로 늘어났다. 대형마트 셀렉션 약 5만 종 대비 100배 더 많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자정까지 주문하면 1년 365일 다음날 배송해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로켓프레시는 자정까지 주문한 신선식품을 오전 7시 전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런칭 12주 만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다. 우유와 과일, 아침식사 대용 간편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선식품을 새벽에 배송받을 수 있는 전국 서비스는 오직 쿠팡에서만 가능하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우리는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이제 쿠팡 고객들은 전국 어디서든 아침 7시까지 신선식품을 배송받고 있다. 와우배송을 이용하면 인기있는 장난감부터 최신 노트북 컴퓨터까지 200만 종의 상품을 문앞으로 당일 혹은 다음날 새벽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배송받는다. 쿠팡은 앞으로도 고객이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게 될 때까지 고객 감동을 위한 기술과 인프라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이대목동병원에서 열린 '로봇인지치료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치매예방 로봇인지치료센터 개소

이대목동병원이 '로봇인지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이대목동병원은 15일 병원 1층에서 한종인 이대목동병원장, 이선영 이대목동병원 진료부원장, 김건하 로봇인지치료센터장과 김덕준 ㈜로보케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인지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기억력, 집중력, 언어 능력 등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로봇인지치료센터가 대학병원에 생기는 것은 이대목동병원이 국내 최초다.

이번에 개소한 로봇인지치료센터에서는 치매 고위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환자의 인지 기능에 따라 1대 1 맞춤형 인지 훈련 프로그램이 인지 훈련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진행된다.

특히 인지 훈련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20종류의 로봇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가 직접 손자, 손녀를 돌보듯이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 로봇이 손자, 손녀가 되어 같이 놀면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이색적이다.

/이세경 기자